

일본, 자위대 병력 20% 감축

일본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자위대 병력을 현재의 18만명에서 14만 5천명으로 약 20% 감축할 것을 골자로 한 새 방위계획을 승인했다.

지지(시사)통신은 지난 76년의 방위계획을 대체할 새 방위 계획이 오는 28일 채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청이 마련한 새 방위계획은 자위대 병력감축외에도 ▲핵 무기 제거 ▲국제분쟁방지 ▲테러대책 개선등을 추구하고 있다. 새 방위계획은 또한 자위대 병력감축의 일환으로 작전용 항공기를 현재의 4백 30대에서 약 4백대로 전투기는 3백 50대에서 약 3백대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F-10 전투기 제작에 러시아이스라엘 지원

중국이 F-10 전투기를 제작하는데 있어 러시아는 수호이사의 SU-27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과 엔진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은 항공기 제작 기술을 비밀리에 제공해 돕고 있다고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방전문지 제인 위클리가 보도했다.

제인誌는 지난해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 현재 중국 사천성 성도(四川省 成都)에서 조립중인 F-10 전투기는 단발 엔진기로 수호이의 레이더 시스템이 부착될 예정인데 중국은 수년전 SU-27 기를 다수 구입했다는 것이다.

제인은 또 F-10 제작계획은 지난 80년대 이스라엘의 비밀 기술 지원 하에 추진돼 왔던 것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 중국에 제공한 기술은 미국이 자금지원을 계획했다가 80년대 중반 취소했던 이스라엘 공군의 '라리' 전투기 개발계획에 대부분 의존한 것이어서 이스라엘의 중국 전투기 기술 지원은 많은 논란을 초래했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F-10 전투기는 내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인데 현재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으로 비행 시험중인 '유로파이터-2000'나 프랑스의 '다소 라파엘' 과 같은 급이라고 제인은 보도했다.

F-16, 7월 대만 인도 시작

미국의 전투기 제작사 록히드 마틴사는 올 7월 대만이 주문한 F-16 체트 전투기 1백50대를 인도하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연합

보가 보도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15일 델러스를 방문한 대만과학사절단에게 금년 5월 대만에 인도할 첫 번째 F-16 전투기를 완성하여 시험을 거친후 7월에 이를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이 전했다. 이 신문은 또한 익명을 요구한 이 회사의 한 대변인이 이 사절단에 록히드사가 1차로 전투기 22대를 대만에 인도한 후 대만에 전투기 주요 부품 9종에 대한 제조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 92년 미화 60억달러에 F-16 전투기 1백50대를 사기로 계약했으며 같은해 프랑스도 대만에 미라주 2000 전투기 60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국방부는 96년에 F-16 전투기와 미라주 전투기를 인도받기 시작하여 수년에 걸쳐 계약분모두를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96년에서 97년 사이에 들어올 F-16 전투기는 약 60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또한 자체 개발한 최초의 국산전투기 경국호 (IDF)기를 94년부터 공군에 실전배치했으며 98년말까지 총 1백30대를 사용할 계획이다.

MD사, F-18E/F 고받음각 성능 개선

미 맥도널더글라스사는 지난해 12월 F-18E/F Super Hornet 시험비행을 실시하였다.

첫 비행시험에서의 환경제어 시스템 블리드 도어 (Environmental Control-System Bleed Door)에 결함을 보완한 후 수행한 이번 시험비행에서는 F-18C/D를 기준으로 개선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시험 비행사인 Fred Madenwald씨에 따르면 20분동안의 비행에서 F-18C/D와 대등하거나 더 좋은 조종성에서의 F-18E/F 설계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4500kg의 연료를 싣고 착륙한 전투기는 250Knot의 착륙속도로 착지하였으며 뒤에 따라온 좀더 가벼운 전투기는 146Knot의 착륙속도를 나타내었는데 착륙시 C/D보다 2,700kg 많은 무게와 10knot느리게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고받음각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전기신호 제어 (Fly-By-Wire)에 의한 조종 성능의 개량으로 고받음각에서 옆미끄러움을 줄이고 Roll rates를 개선하였으며 40도 이상의 받음각에서도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

도록 하였는데 이는 C/D에 비해 5도나 증가한 것이다.

또, 날개 앞전에 더 많은 스포일러를 달아 기수내림 (Nose Down) 조종성을 좋게 하였으며 C/D에 비해 항속거리가 40%나 증가하였다. F-18E/F는 첫 배치는 금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폴, 알파젯 구매에 어려움

폴란드 정부가 자국산 PZL-Mielec사의 Iryda 제트훈련기 대신 중고 다소/도니어 (Dassault/Dornier)사의 알파젯 (Alpha Jets) 구매계획을 보류하였다.

올렉스 (Jozef Oleksy) 수상은 Mielec의 이익면에서 볼 때 이 계획은 의심나는 곳이 많다고 말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elec사의 노동자들은 지난달 폴란드 국방부의 Iryda 구매 거부에 항의하였으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Iryda의 높은가격이 공군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Iryda의 주설계자인 Marek Potapowicz씨에 따르면 이번 Iryda의 판매계획은 Iryda생산량의 35%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만약 회사가 굴복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파산하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군당국자는 약 40대의 알파젯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으며 시연장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며 아울러 체코제 Aero Vodochody L-39 Albatros 와 SAAB 105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정식적인 협약이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협상중이며 독일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35대의 알파젯은 곧 퇴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Potapowicz씨는 항공기의 현대화뿐 아니라 폴란드 조종사와 지상승무원의 재훈련비용을 감안한다면 결코 싼 가격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Iryda개발은 엔진마력의 부족, 적은 유효하중, 전자계통의 문제등 개발초기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Mielec사는 전자계통을 보수하기는 하였지만 당국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도 하였다.

폴란드 공군은 12대의 Iryda를 구매하였는데 그중 3대는 작년까지만 인도되었으며 5대가 I-22 기본형인데 국방부장관은 폴란드 해군으로 Iryda를 넘겨주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Mielec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0대의 TS-11제트훈련기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맡길수 있다고 말했다.